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문화홍보국장

## | 두려워 말고 선포하라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몇 달, 코로나바이러스로 미사 전례를 비롯한 신앙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 변화도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 또 교회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는 시절입니다.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복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곤경의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느님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1독서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 선, 그러나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사람,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과 백성이 처한 위기를 내다보며 야훼 하느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백성이 기다리는 ‘야훼의 날’은 구원과 승리의 날이 아니라 패배와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엉뚱하게도 ‘뿔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는 일을 위해’(예레 1,10 참조) 파견되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희구하는 그가 유다 왕국의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겁내고 두려워하던 그가 왕들과 사제들, 거짓 예언자들, 모든 백성을 거슬

러 싸움으로써 ‘온 세상을 상대로 시비와 말다툼을 벌이는’(예레 15,10 참조)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는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그를 파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역경을 이겨낼 힘도 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예레 1,19) 하느님의 말씀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인 동시에 기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순교하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불충실과 비겁함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해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삶의 매 순간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증거해야 할 현장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에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특별한 소망이 담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 구원의 은총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마태 10,32)

라베르나 성지 오상 경당 회랑의 측벽에 있는 작은 문을 나서면 바위 틈 사이로 조그만 통로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통로 뒤에 있는 바위 절벽에서 한동안 홀로 묵상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 길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사람일 것입니다.

임창준 프란치스코 | 가톨릭사진가회

